



대한해운

이진방 사장 해운물류경영대상



대한해운(www.korealines.co.kr) 이진방 사장이 2월1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매일경제신문사와 한국해운물류학회가 공동주관한 '2007 해운물류경영대상'을 수상했다.

한국해운물류학회는 해운물류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해운물류기업 경영인을 발굴하여 경영의욕을 고취하고 해운물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전형위원회(연구계 2, 업계 1, 언론계 2, 학계 3)를 구성하여 1차 수상후보자 추천, 2차 경영실적 평가, 3차 수상후보자를 대상으로 경영철학과 비전 등의 최종 대면심사 과정을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번 상은 2002년에 '해운물류 e-Biz 대상'으로 제정된 이후 올해 '해운물류경영대상'으로 개정되어 처음으로 수여되는 상으로 대한해운 이진방 사장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대한해운은 철광석, 석탄, 천연가스 등 국가 필수원자재를 수송하는 벌크전문 해운회사로 지난해 매출 1조1,502억에 당기순이익 1,104억원을 기록하였고, 올해 사업계획은 매출 1조 3,608억원, 영업이익 1,39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20%

신장할 계획이며 'KLC VISION 2010'을 통하여 오는 2010년에는 매출 2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진방 사장은 선친 고 이맹기 회장의 창업정신인 윤리경영·정도경영을 계승·발전시키고 대한해운을 국가와 민족에 도움이 되는 기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나아가 해운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신망 받는 진정한 해운경영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대한해운은 2월7일 한국선급으로부터 국제규격의 안전보건 관련 인증인 'OHSAS 18001'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한해운은 지난 1994년 품질경영관련 인증인 ISO 9001과 지난해 환경경영 관련 인증 ISO 14001 획득에 이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보장함으로써 최고의 운송서비스와 안전을 보장하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OHSAS 18001은 노르웨이, 영국, 프랑스 등의 세계 인증·표준 기관들이 공동 고안한 것으로 기업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개선함으로써 조직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영 시스템이다.

대한해운은 지속적인 안전품질시스템의 개정을 통해 육상 및 해상직원의 지속적인 교육과 심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OHSAS 18001' 인증획득으로 작업장내 신뢰감 향상은 물론 위험성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STX팬오션

큐슈·세토우치서비스 개편

STX팬오션(대표 이종철)은 최근 큐슈·세토우치



서비스를 개편, 시부시 기항을 주2회로 강화했다.

큐슈·세토우치서비스는 196TEU급 Korex Incheon호를 투입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항지는 시부시/토쿠야마/부산/시부시/토쿠야마/부산/시부시 등이다.

한편, 지금까지 큐슈·세토우치서비스로 기항하고 있던 히메지는 관서서비스에 편입된다. 이 서비스는 330TEU급 Korean Express를 투입하고 있으며, 3월2일부터 서비스가 일부 조정된다. 서비스루트는 오사카/고베/히메지/마산/광양/부산/오사카순이다.

장금상선

일본 우베항 기항 개시

장금상선(대표 정태순)은 1월30일부터 한국/시모노세키·큐슈서비스에 우베항 기항을 개시했다. 이 서비스는 140TEU급 2척이 투입돼 부산·마산과 일본의 시모노세키, 모지, 호소지마, 이와쿠니, 오이타를 연결하고 있으며, 부산·마산에는 주6항차 체제로 기항하고 있어 우베항에는 매주 화요일 기항한다.

우베항에 기항하는 루트는 SS Busan호가 투입되고 있는 루프로, 새로운 기항지 로테이션은 부산/마산/시모노세키/우베/부산/마산/시모노세키/모지/부산/마산/시모노세키/모지/호소지마 순이다.

한편, 우베(宇部)는 일본 혼슈(本州) 야마구치현(山口縣)에 있는 탄광도시로 유명하다.

진양해운

파나막스 신조선 2척 발주

중형 벌크선사로 고속성장을 거듭해 온 진양해



운(대표이사 홍승두)이 최근 신조 벌크선 2 척을 발주하면서 회사 입지를 굳게 다졌다.

김재운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중국 난징에서 지양수 이스턴 쉽야드(JIANGSU EASTERN SHIPYARD) 조선소와 파나막스 벌크선 2척을 건조하기로 계약했다” 며 “이 정도 대형선박 발주는 국내 5대 메이저 선사를 제외하고 우리 회사가 두 번째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건조될 벌크선은 각각 8만톤급으로 총 길이가 229미터에 달하며 화물을 실을 수 있는 면적은 9만 3800 m² 정도이다. 오는 2009년 말과 2010년 초에 인도될 예정이다. 김 부사장은 “지난해 9월부터 선박 발주 준비를 시작한 끝에 이번 계약을 성사했다”고 전했다.

진양해운은 그 동안 중고선을 주로 매입해 온 터라 이번 신조선 발주에 남다른 의미를 두고 있다. 최근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중고선 가격과 선박 수명을 고려하면 아예 새로운 선박을 건조하는 것이 회사 입지와 경영조건을 볼 때 낫다는 것.

김 부사장은 “오는 2010년까지 총 25척의 선박을 운용하는 것이 진양해운의 목표”라고 말했다. 현재 보유한 선박이 7척인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매우 적극적인 경영을 펼치겠다는 뜻이다. 벌써 올 초에도 핸디막스 중고선 2척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갖추고 추진 중이다.

중국 현지를 몇 차례씩 오가며 중국 조선소를 직접 물색한 김 부사장은 “최근 중국 조선소의 달라진 위상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그 동안의 신조선 발주 경험을 통해 쌓은 노하우를 발휘해 회사 성장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파크로드

PCTC선 취항기념식



파크로드(대표 염은선)는 2월5일 중국 천진 신강조선소에서 PCTC선 MV Nova Sea호의 첫 취항기념식을 가졌다.

동 선박은 5개월의 공기를 거치면서 총 1,000대 규모의 차량 및 장비를 탑재할 수 있는 PCTC선으로 전면 개조되어 앞으로 한국과 중국 그리고 중동 노선에 취항 예정이며 특히, 중장비 및 상용차량 전용선으로 그 동안의 High & Heavy 물동량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동사는 현재 개조작업 중인 MV Nova Sun의 취항식을 다음 달 중순경으로 정하고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이날 취항취항기념식에는 파크로드 염은선 사장, 신한캐피탈 한도희 사장을 비롯한 내외빈과 선원일동, 중국 조선소 관계자들 그리고 현지 고

객들이 초청되어 동 선박의 장도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였다.

천경해운

일본 KURE시 감사장 받아

천경해운(대표 김지수)은 최근 일본 KURE 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천경해운은 지난 2001년 12월부터 BUSAN-일본 KURE(呉) 항로 Service를 개설하여 SEMI-CONTAINER 선으로 Container 및 Bulk 화물 운송 Service를 하여왔으며, 스케줄은 부산(매주 토요일) - KURE(매주 화요일) 이다.

이와 관련하여 천경해운은 지난 12월 KURE항 취항 5주년에 즈음하여 KURE시장으로부터 감사장 및 기념품을 KURE항 대리점인 Horiguchi Kaiun Co., Ltd. 를 통하여 전달받았다.

KURE는 Hiroshima 시에서 남동쪽으로 약 35Km 떨어진 도시로서 조선, 제철산업이 발달되어 있고, 일본에서 요코스카, 사세보와 함께 유명한 군항으로 우리나라 진해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한편, 천경해운이 최근 인천-닝보 서비스를 상해까지 확대했다. 천경해운은 하주에게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운항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존 인천-닝보 서비스 항로를 지난해 12월20일부터 인천-닝보-상해로 확대하여 서비스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입선박은 2006년 건조된 지파 동해(JIFA DONGHAI)호로, 인천에서 수요일날 출발해 금요일에는 중국 닝보를, 일요일에는 상해를 운항하고 있다.



태영상선

홈페이지 기능 대폭 강화

태영상선(대표 박영안)이 2월1일부터 홈페이지(www.taiyoungship.co.kr)를 신규 오픈했다.

새롭게 선보이게 된 이번 홈페이지는 지난 1월에 1년간의 작업기간을 거쳐 개발한 종합물류정보 시스템 'Uni-TY'를 기반으로, E-BOOKING, CARGO TRACING, VMS(VESSEL MOVEMENT SYSTEM), PORT SCHEDULE 등을 특징으로 다채로운 기능의 E-SERVICE를 한층 더 강화했다.

이와 함께 태영상선은 고객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더 많은 고객들이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2월16일까지 태영상선 회사명으로 4행시 짓기와 태영상선에게 바란다 등 이벤트를 실시했다.

한진해운

6,500TEU급 2척 명명식

한진해운(대표 박정원/www.hanjin.com)이 6,500TEU급 최첨단 컨테이너선인 '진 텐진호'와 '한진 샤먼호' 2척을 아시아-구주항로에 투입한다.

2월7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명명식을 가진 6,500TEU급(1TEU는 길이가 20피트인 컨테이너 한 개임) 초고속 최신행 컨테이너선인 '한진 텐진(Hanjin Tianjin)호'와 '한진 샤먼(Hanjin Xiamen)호'가 각각 2월과 3월에 구주항로인 FEX(Far East Europe Express Service)노선



에 투입 된다.

동 선박은 6,500TEU급 신조 시리즈 8척 중 4척 및 5척선으로 운항속도 27 노트(육상기준, 약 시속 50 킬로미터)의 최고속도를 자랑하는 최첨단 선박이다.

특히, 선박 엔진의 완전연소를 통해 매연 발생을 없앤 최신행 친환경 선박일 뿐만 아니라 날로 치솟고 있는 고유가의 파고를 헤쳐 나가기 위해 저속 및 고속 운항 등 모든 조건하에서도 연료 효율성을 최적화한 경제선이다.

아울러, 한진해운은 이미 운항중인 동급 선박을 비롯 총 8척의 선박을 2008년 초까지 주력 노선에 순차적으로 투입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선대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 개선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날 한진해운 박정원 사장은 "한진해운은 날로 심화되는 국제해운 경쟁 속에서 지배선단을 효율적으로 대형화하고 선사간 얼라이언스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함은 물론 지속적인 내부 변화와 혁신을 추구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종합물류기업'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진해운은 전세계 60여 개 항로에 80여 척의 컨테이너 선박을 운항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국내 해운사 최초로 1만TUE급 초대형선을

발주하는 등 명실공히 글로벌 초일류 선사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여가고 있다.

한편, 이날 명명식에는 한진해운 박정원 사장의 부인인 이희인 여사와 하성민 해상 노조위원장의 부인인 허정림 여사가 함께 선박 명명을 하여 노사 화합의 의미가 덧붙여진 뜻 깊은 행사가 되었다.

인천항만공사

비전 2020 선포

인천항만공사(사장 서정호)는 2월14일 오전 사옥 대회의실에서 전 임직원과 한준규 항만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장기 비전 선포식을 갖고 '황해권 최고의 교류중심 거점으로 성장'을 IPA 비전 2020으로 설정했다.

IPA가 선포한 'IPA 비전 2020'에 따르면 2020년에는 △매출액 3350억원 △컨테이너 물동량 534만teu △전체 화물 물동량 2억4700만톤 달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전 임직원이 인천항의 발전의지를 다시 한번 확고하게 다지는 한편 중장기 전략 과제를 명확하게 설정함으로써 인천항의 발전을 앞당긴다는 차원에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서정호 사장은 비전 선포사를 통해 "2020년 인천항의 모습은 지금과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달라져 있을 것"이라며 "전 임직원이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비전 2020은 가까운 미래에 현실화시킬 수 있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서정호 사장은 비전 2020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 과제로 △다양한 교류거점 확보 △항만 소프트웨어 차별화 △경쟁력있는 항만개발 △항만관

제자와의 상생 협력을 통한 성장 등 4가지를 설정했다.

한준규 항만위원장(황해객화선사협회 대표)은 격려사를 통해 "인천항만공사가 출범한 이후 인천항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오늘 비전 선포식을 계기로 더욱 달라질 인천항의 미래 모습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복합운송협회

2007년도 정기총회 개최



한국복합운송협회(회장 김인환)는 2월13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200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사업보고와 금년도 예산안 사업계획등을 심의의결했다.

회원사 730사 가운데 4백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정총에서 김인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인천 부산신항에 CFS기능 확보와 배후물류단지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포워더 통관업무 확보에도 주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씨레일코리아 대표이사인 허종 감사의 보고에 이어 지난해 사업실적 가운데 협회명칭과 등록업



관할 건교부 이관, 부산신항 공동물류단지 조성, 포워더 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추진, 항공화물 보안검색업무, 인천국제공항 통근버스 이용료, 한중일 유류할증료 징수, 인천공항 토지사용료, TSR운임 인상대책, 수출입물류 제도개선, 항공 화물 부대비징수 등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영진 사무국장은 금년도 중점 추진사업으로 복운업등록업무 중앙부처로 이관, 통관업무 관세사법 개정, 적하목록 전송 문제점개선, 중국 물류시장 진출방안모색, 항만배후부지 CFS건립 추진, 3자물류 표준계약서 제정, 국내의 물류산업, 개성공단 견학, 브로셔제작 홍보강화, 항공해상운송 제사항 개선지원 등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한편 올해 수입예산은 회비 월 4만원으로 동결하고 지출은 전년대비 7천3백만원이 소액증액된 8억2,800만원으로 편성했다고 보고했다. 지난해 사무국 운영 예산적자로 올해는 홍보비와 교육사업비, 수선비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하고 최대한 살림살이를 긴축기로 했다.

항해객화선사협회 2007년도 정기총회 개최

항해객화선사협회는 2월7일 200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우극 회장의 후임으로 박원경 한중훼리 대표이사 사장을 신임회장으로 선임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부회장단에 한중규 대인훼리 사장이 선임되었으며, 이상조 전임 부회장과 주재환 감사는 유임되었다.

이날 총회는 최근 카훼리 가입 회원사의 증가로 인해 협회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급변하는 한



중항로의 시장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회원사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협의회 명칭 대신 협회로 변경, 황해객화선사협회로 결정했다.

협회는 또 한중 양국간 인적, 물적 교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범적으로 실시중인 한중 양국간 승용차 휴대여행의 확대 시행과 활어차 등 특수차량의 도어 투 도어 윈스톱 서비스의 정착 및 카훼리 이용 중국인 여행자에 대한 무사증입국제도를 활성화하여 카훼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로 했다.

또한 한중객화선사협회는 한중항로에 취항중인 카페리 14개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으며, 2007년도 협회 예산을 전년도와 비슷한 2억7,000만원으로 확정하고, 사무국 직원들의 인건비를 약 5%정도 인상하도록 결정했다.

한편,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박원경 한중훼리 사장은 전임 이우극 회장이 국내 연안 카훼리 선사인 동양곡속훼리(주)의 총괄 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전임 이우극 회장의 잔여 임기인 1년간을 하기로 결정하고, 내년 정기총회에서 다시 임기 2년의 신임회장으로 연임하거나, 재선임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